

# 1920년대 만주, 상하이, 베이징과 조선의 ‘근대’들

송가배\*

[서평] 주효퇴(2020), 『식민지 조선 지식인, 혼돈의 중국으로 가다: 1920년대 조선 지식인의 중국 인식에 대한 사상적 고찰』, 소명출판, 424쪽

## 1. 조선의 중국 담론과 지역성(locality)

주효퇴(周曉蕾, 저우샤오레이)의 저서 『식민지 조선 지식인, 혼돈의 중국으로 가다: 1920년대 조선 지식인의 중국 인식에 대한 사상적 고찰』(이하 『중국으로 가다』)는 1920년대 중국에 머물렀던 조선 지식인의 기행문, 논설 등의 비허구적 글쓰기를 통해 중국 경험과 인식을 분석한 사상사 연구다. 당시 조선 지식인은 중국을 조선과 유사하게 국권 회복과 근대화의 과제를 갖고 있는 ‘반’(半)식민지로 인식하면서, 중국을 참조항으로 조선 문제에 대해 사유하였다. 다시 말해 ‘중국’이란 조선 사상사가 전개되는 하나는 ‘장’이었다. 따라서 중국 인식과 담론에서는 조선의 “근대 의식, 민족 인식, 지역(동아시아) 및 세계인식 그리고 자아 인식”(20)<sup>1</sup>까지 드러났다.

조선인에게 중국이란 무엇이였는가라는 질문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 지식인의 중국 담론을 통해 조선의 자기 인식을 분석하는 사상사 연구 역시 상당히 축적된 상태다. 그렇다면 『중국으로 가다』가 지니는 차별성은 무엇일까? 첫째, 그것은 중국 인식에서 ‘중국’이란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국

\*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1 이하 괄호 안의 숫자는 주효퇴(2020), 『식민지 조선 지식인, 혼돈의 중국으로 가다』, 소명출판의 쪽수다.

가' 대신 지역을 분석 단위로 삼는다. “‘중국’이라는 단일한 틀로 환원될 수 없었던 특수한 지역성”(28)에 착목하는 것이다. 1920년대 중국으로 간 조선 지식인이 실제로 직면하였던 현실 공간은 각각의 고유한 ‘역사적 장소성’을 지닌 만주, 베이징, 상하이의 세 지역/도시다. 그들은 이곳에서의 구체적 경험을 통해 중국을 인식하고, 다시 그것을 거울삼아 조선의 문제를 사유하였다. 둘째, 세 공간의 담론을 나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호간의 연계성, 동시성을 염두에 두고 전체적인 시야에서 비교 분석하였다. 즉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근대 담론이라는 문제의 지평 위에서, 세 공간의 경험이 각각 어떠한 근대의 성찰과 모색으로 이어졌는지 살펴보았다.

강조할 점은 지역성이 조선인의 중국 담론을 결정짓는 요소는 아니라는 것이다. 본서에서 역사적 장소성이란, 중국 근현대사의 내재적 발전 과정에서 형성된 역사적 실체이면서 동시에 1920년대 조선인이라는 주체의 경험에 의해 구성된 관계적인 개념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식 주체인 조선 지식인의 배경, 이념적 성향, 문제의식 등의 맥락도 세밀하게 고려되고 있다. 저자는 지식인의 개별적 인물론을 지양하고 집단적인 단위에서 분석하고 있는데, 당시 조선 사회의 사상적 지형에 따라 좌와 우, 사회주의/국제주의와 민족주의 등으로 분류하였다.

본론은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사적 장소성에 따라 세 지역/도시로 나뉜다. 먼저 1부에서는 1920년대 조선의 중국 인식의 맥락을 짚어 주기 위해 근대계몽기(1985~1919년)의 시대적, 사상적 상황을 설명하였다. 이 시기 중국 인식의 양가적인 표상인 중화주의와 민족주의는 이후 1920년대 지식인의 중국 담론을 간접적으로 구성하였다. 2~4부에서는 만주, 상하이, 베이징의 역사적 장소성을 설명하고, 관련된 중국 담론을 구체적인 역사 텍스트를 통해 재구성하였다. 만주 담론에서는 최남선, 박노철, 홍승구, 박영철, 이돈화, 방인근, 이관용, 상하이 담론에서는 최득건, 홍양명, 이광수, 주요섭, 주요한, 조덕진, 베이징 담론에서는 이상룡, 양명, 김동성, 조동호, 신채호, 이동곡 등이 비중 있게 다뤄졌다.

결론에서 저자는 비교하는 측면에서 만주, 상하이, 베이징 담론을 총괄하며 조선 지식인이 4가지의 근대화 경로를 사고하였다고 정리한다. 바로 일본적 근대, 서구적 근대, 동아시아적 근대, 조선적 근대다. 그리고 베이징 담론에서 다원성을 내포한 중국적 근대를 인식함으로써 주체적인 조선적 근대 구상이 가능하였다고, 그 역사적 의의를 인정하였다.

## 2. 경쟁하는 조선의 ‘근대’들

1920년대 만주, 상하이, 베이징의 역사적 장소성과 마주한 조선 지식인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중국 담론을 생산하였을까? 조선인에게 만주는 이주와 망명의 땅, 상하이는 근대식민도시, 베이징은 중화제국의 옛 수도이자 현대중국의 정치 중심지였다. 조선 지식인은 이 세 공간에서 1920년대 중국의 신문화운동, 반제운동, 국민혁명, 내전, 난징정부 건설을 경험하면서 중국과 조선의 근대에 대해 고민하였다.

먼저 만주 담론은 기존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당히 비판적으로 서술된다. 요약하자면 만주에서 조선인은 일본적 근대를 모델로 하여 식민지 근대화를 수용하였다. 주지하다시피 식민지 조선의 문학과 언론 등에서 만주는 민족의 외연 지대로서, 종종 가해자 중국인에 의해 조선인 이주민이 핍박당하는 수난의 공간으로 묘사되었다. 저자는 이러한 인식이 일제의 만주 침략을 정당화한 측면이 있었고, 결국 1930년대 내선일체로 논리로 귀결하였다고 비판한다. 주목할 점은 그 원인으로 지목된 몰주체성이다. 근대 인식에서 민족 주체성의 여부는 저자가 상하이, 베이징 담론의 역사적 의의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도 일관되게 중요한 기준이다. 만주 담론에서 조선의 근대는 몰주체적인 것으로, 문명화된 일본(인)과 미개한 중국(인)이라는 지평 속에서 조선(인)은 부재한다. 결론적으로 만주는 조선인에게 “민족의 뿌리를 두고자 하는 공간”이었지만, 중국과 일본 사이에 놓이면서 “자아 및

민족성 상실”(187쪽)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다.

상하이 담론은 만주의 경우에 비해 훨씬 복잡하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국과 일본에 더하여 서구의 근대라는 축이 추가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상하이는 5·30운동, 반제·반자본주의 운동, 신흥중국의 출현과 같은 역사적 사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한 중국현대사의 핵심현장이었다. 요컨대, 상하이의 역사적 장소성은 식민도시, 모던도시, 마도(魔都), 고도의 경제성장의 중심, 혁명도시의 면모가 중층적으로 융합된 것이다.<sup>2</sup> 그렇기 때문에 방문 기간과 목적, 이념적 지향에 따라 중국 인식에 편차가 존재하였다.

저자는 상하이 담론의 내부적 편차를 세밀하게 짚어 주면서도, 만주 및 베이징 담론과의 비교 시야 하에 상하이 담론의 핵심을 동아시아적 근대 담론으로 본다.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 연구는 난징정부 수립 후 주요한의 신흥중국론에 대한 비판적인 독해다. 주요한은 장기간 상하이에서 유학생, 특과원의 신분으로 머물며 활발히 중국 관련 언설을 발표했기 때문에, 조선인의 중국 인식 연구에서 비교적 많이 다루어졌다. 본서에서 저자가 주요한으로부터 읽어 내는 것은 동아시아 반제 연대론이다. 그런데 그 ‘동아시아’란 서구 제국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나온 ‘동양인’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 즉 “반서구주의, 반근대주의를 위해 고안”했기 때문에 내재적인 논리에 의해 지탱되기보다는 “방어적이며 절충적”인 것이었다(279).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 외세의존적인 동아시아 인식이다. 만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920년대 중국을 통해 주체적인 근대를 사유하지 못했던 것이다. 저자는 그와 같은 취약성 때문에 주요한의 ‘동아시아’가 1930년대 일본의 ‘대동아공영권’, ‘대아시아주의’로 편입되었다고 비판한다.

1920년대 상하이 담론을 1930년대 조선의 사상사와 연결시키는 접근법은 이후 구체적인 인물 연구를 통해 더욱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이상 상하이의 다면성을 ‘크레올(creole) 상하이’ 내지 ‘모자이크 상하이’라는 개념하에 복합적으로 파악하고자 한 집단연구로 高橋孝助·古厩忠夫 編(1995), 『上海史: 巨大都市の形成と人々の営み』, 東京: 東方書店 참고.

다. 저자는 1942년 주요한이 태평양전쟁을 찬미한 시를 근거로 그의 외세 의존적 동아시아 인식, 즉 중국 중심적 동아시아 반제 연대론이 “거의 저항 없이 일본의 제국주의적 대동아공영권론으로 변질”(282)되었다고 하였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의 연대론은 ‘취약’한 것이 맞다. 그럼에도 1928년의 신흥중국에 대한 희망적 논설이 1942년의 ‘대동아’론으로 이어지는 과정, 그 사이의 기나긴 사상적 노정 자체는 결코 단순하지 않았을 것이다. 현재 주요한의 ‘친일’ 문학자로서의 도정이 어떠한 내재적인 논리를 지녔는지 그 과정을 추적한 연구는 다소 나와 있다. 하지만 ‘중국’이라는 키워드는 잘 보이지 않는다.<sup>3</sup> 상하이 경험, 혹은 중국이라는 참조항은 충격적인 우한(武漢) 함락, 검거와 같은 개인적 계기를 거치며 방기되어 버렸을까? 혹은 잠류하며 논리적 전환을 거쳐 ‘대동아’ 질서를 뒷받침하는 사상적 자원으로 쓰였을까? 주요한의 사례를 통해 1920년대 상하이 담론이 1930년대 이후 조선의 사상사에서 어떠한 여정을 거치는지 재구성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베이징은 만주, 상하이와 대조적으로 조선 지식인의 주체적인 근대 인식을 드러낸 공간으로 강조된다. 베이징이 조선인에 대해 갖는 역사적 장소성은 신구(新舊) 중국의 공존, 신문학운동의 발원지, 공산주의 및 아나키즘의 전파지 등으로 정리된다. 이 가운데 서술의 방점은 베이징의 신중국, 즉 살아 있는 중국과 그에 대한 조선 민족지(『조선일보』, 『동아일보』, 『개벽』)의 인식에 있다. 여기서 중국과 근대에 대한 ‘조선적 시각’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저자가 명명한 중국 담론의 조선적 시각이란, “조선, 중국을 하나의 연쇄 고리 속에서 연결시켜 보는 것”으로, “독립된 국민국가 건설 지향과 근대화 지향이라는 이중적 과제를 동시적으로 안고 있다는 공감대

3 최명국(2011), 「주요한의 상상된 '조선혼'과 친일문학의 도정」, 『현대문학이론연구』 45, 현대문학이론학회; 김경숙(2011), 「친일과 전향의 내적 논리 1: 주요한의 경우」, 『우리문학연구』 32, 우리문학회 참고. 한편 다음의 연구는 주요한의 일제 협력 시기 ‘중국’이라는 참조항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김재용(2018), 「일제 최후기 조선문학과 중국」, 『현대문학의 연구』 65, 한국문학연구학회.

에 뿌리”(337)한 것이다.

조선적 시각을 의식적으로 추구하고 발전시킨 지식인은 양명, 이동곡, 조동호, 신채호 등이다. 그 중 저자가 힘주어 분석한 것은 이동곡이다. 잘 알려진 대로 그는 『개벽』의 베이징 특파원이자 유학생으로서 조선에 중국 신문화운동을 중점적으로 소개하였다. 그는 전통적인 사대주의적 시선이 나 제국의 시선과 거리를 두고, 비판적이고 주체적인 중국 인식, 나아가 조선과 동아시아에 대한 인식을 촉구하였다. 이동곡에 대한 이 같은 개괄은 기존의 연구와 저자 사이에서 일치하는 지점이다.<sup>4</sup> 본서의 차별성은 이동곡의 중국 인식에서 베이징의 역사적 장소성이 지니는 의미에 천착한 것에 있다. 그에 따르면 이동곡의 주체적인 중국 인식은 ‘참된 장소감’(385)에 기반한 것으로, 신문화운동을 중심으로 한 베이징 경험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저자는 베이징의 역사적 장소성이 주체적인 중국적 근대의 사과의 기반이 되었다는 점을 방증하는 예로 동시기 존 듀이(John Dewey), 1940년대 다케우치 요시미(竹内好)를 든다. 그들 역시 베이징에서 장기 체류하며 이동곡과 유사하게 중국적 근대를 사유하였다는 것이다(396).

그러나 조선적 근대라는 시각이 베이징 경험과 배타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지는 토론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존 듀이, 다케우치 요시미, 이동곡 등 베이징의 외국인을 본격적으로 비교하는 후속 작업도 필요하다. 일단 이동곡 개인만 놓고 보더라도 그의 중국 인식이 베이징의 역사적 장소성에서만 기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동곡은 1922~1923년 상하이와 베이징을 부단히 오갔던바,<sup>5</sup> 두 공간에서 경험한 ‘중국’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선적 근대 구상으로 이어졌을지 궁금하다. 물론 이동곡의 1925년 이후 행적을

4 한기형(2005), 「근대 초기 한국인의 동아시아 인식: 『청춘』과 『개벽』의 자료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50; 천진(2012), 「1920년대 초 동아시아의 성찰하는 주체와 현대 중국의 표상」, 『중국문학』 72 등.

5 이동곡이 이민창(李民昌)과 동일인임을 가정할 경우 그러하다. 양자가 동일인물임에 대한 상세한 논증은, 차태근(2019), 「한국 신문화운동과 중국의 시좌: 1920년대 전반 李東谷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54, pp. 218-225 참고.

포함한 전기적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베이징 경험을 실증적으로 재구성하기 어려운 점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 이동곡이 속하였던 베이징의 천도교도 네트워크에 대한 이해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동곡의 베이징 경험에서 천도교로서의 자의식, 천도교 집단 네트워크 등이 큰 영향력을 발휘했기 때문이다.<sup>6</sup>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저자가 이동곡의 조선적 시각에서 ‘인터-아시아’의 시각을 발견한다는 점이다. 저자의 ‘인터-아시아’는 다케우치 요시미와 천광싱(陳光興)으로부터 계발받은 개념으로, 아시아 내부에서 서로를 참조의 대상으로 삼는 문제의식이다. ‘인터-아시아’적인 조선적 시각은 중국적 근대, 즉 “암담한 반식민 현실을 벗어나야 한다는 긴박감 속에서 서구적 근대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재구성하는 주체적 근대에 대한 중국인의 모색”(357)에 공감한다. 중국의 맥락에서 벗어나 있고, 외세의존적인 상하이 담론의 ‘동아시아’와는 다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동곡의 중국적 근대는 당시 주류적 시각이 아니었고, 더욱 발전하거나, 누군가에 의해 계승되지도 못하였다. 1930년대 후반부터 베이징에 대한 조선인의 경험은 만주의 연장선상에 놓이게 된다.

저자는 베이징이라는 공간에서 ‘인터-아시아’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었던 조선적 근대와 중국적 근대의 사유가 지금 여기 우리가 다시 읽고 참조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사상적 가치 때문에 저자는 베이징 담론을 상하이보다 뒤에 배치하여, 이 연구의 최종적인 결론이자 현실에 대한 교훈으로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100년 전 조선인의 중국 담론을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미래의 방향성까지 발견하고자 하는 실천적인 태도가 엿보인다.

6 차태근(2019) 참고.

### 3. 주변에서 본 중국

『중국으로 가다』는 조선 사상사 연구이면서 일종의 ‘주변에서 본 중국’ 연구이기도 하다. 즉 그것은 조선을 방법으로 하여 1920년대 중국 현대사를 재구성할 새로운 시각을 제공한다. 물론 이 저서에서 조선인이 중국의 역사 현장에 어떻게 개입하였는지까지는 다루고 있지 아니하다. 조선이라는 한 타자의 시각으로 현대 ‘중국’이 정치적·역사적으로 구성되어 온 과정을 재구성하는 것은 본서의 성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에서 할 작업이다.<sup>7</sup> 필자가 본서에서 느낀 새로운 중국 현대사의 면모는 만주, 베이징, 상하이와 같은 위상에 놓고 비교함으로써 드러나는 지점들이다. 그것은 단순히 중국 내 지역/도시의 “규모의 비대칭성”(28)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정치적 위상을 비틀어 놓는 것이다.

먼저 만주는 ‘오사’(五四) 신문화운동, ‘대혁명’ 시기 중국의 변방으로서, 상하이, 베이징에 비견할 문학 활동이나 사회 운동, 정치 혁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1920년대 조선 지식인에게 만주는 민족적 현안이자, 사상사를 추동하는 중요한 공간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관용은 1928년 신흥중국을 취재하기 위해 상하이가 아닌 평톈(奉天)을 기점으로 하였던 것이다. 또한 만주는 상하이, 베이징 경험의 참조항이기도 하였다. 베이징에 가는 조선인은 ‘관외’(關外) 평톈을 지나쳐야 했고, 일본 영향하에 개발된 만주를 기준으로 ‘관내’(關內) 베이징을 평가하였다. 그들에게 만주는 안정을, 베이징은 혼돈의 중국이었다(299-300). 한편 상하이에서도 조선 지식인은 만주와 비교하며 각각 근대가 과잉과 결여된 곳이라고 느꼈다(246). 이

7 중국의 사학자 거자오광(葛兆光)이 제시한 ‘주변에서 본 중국’[從周邊看中國] 개념은 ‘중국’을 과거로부터 이어진 내재적 전통을 지닌 존재임과 동시에, “타자의 시각으로 정의, 협상, 상호 작용되는 정치·역사의 장”으로 본다. 왕더웨이(2017), 김혜준 역, 『시노폰 달론, 중국문학』, 고양: 학교방, p. 162. ‘주변에서 본 중국’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은 민병희(2017), 「‘중국’과 사상사(思想史): 거자오광(葛兆光) 교수와의 대담」, 『중국지식네트워크』 9(9) 참고.



처럼 조선인의 경험을 주제로 하여 1920년대 중국 현대사를 서술했을 때, 지역/도시들 간의 위상이 미묘하게 달라지면서 새로운 지점들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한 발 더 나아가 만주, 상하이, 베이징 경험에서 조선의 ‘근대’들뿐만 아니라 중국 내부의 경쟁하는 ‘근대’까지도 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만주, 상하이의 ‘식민지 근대성’은 건국 이후 해방구(解放區) 경험과 항전, 혁명을 중심으로 한 현대사 서술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난제다. 이 지역들은 여전히 저항과 협력, 민족과 반(反)민족의 경직된 기준으로 서술되고 있다. 따라서 특정한 정치 이데올로기와 일국사적 시야를 반성하고, 비(非)중국적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근대성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서구와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성에 대한 비판의 시각은 유지하면서 말이다.

#### 4. 한국과 중국의 상호 참조를 위하여

현재 한국 사회는 세대와 진영을 불문하고 ‘반중’, 심지어 ‘혐중’ 정서가 팽배해 있다. ‘혐중’은 당혹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한중 간의 문제의 소재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sup>8</sup> 그리고 한 발 나아가 ‘혐중 시대’라는 소극적 프레임보다 ‘문명대전환기’로 인식하고 ‘비판적 중국연구’에 대한 근본주의적인 자기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sup>9</sup>

근래 들어 중국 연구자 사이에서 ‘혐중’의 시대에 중국학이 어떠한 길로 나아갈 것인지, 현실에 대해 어떻게 개입해야 하는지 등의 문제가 공통의 의제로 논의되고 있다. 여러 논의들 가운데 자주 보이는 답은 중국학이

8 한중 갈등의 지목 효과와 관련, 임대근(2022), 「한-중 문화갈등의 발생 양상 연구」, 『한중언어문화연구』 63, p. 216 참고.

9 백영서(2022), 「문명대전환기 한국에서 ‘비판적 중국연구’의 제고와 보급」,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2022.5.28.), pp. 1-2.

우리 사회로 하여금 중국에 대한 무지를 극복하고 진정한 ‘지중’(知中)의 길을 걷도록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다.<sup>10</sup> 그런데 동시에 중요한 것은 중국을 아는 만큼이나 우리 자신에 대해 아는 것, 그리고 우리 안의 ‘중국’에 대해 아는 것이다. 이 점에서 『중국으로 가다』는 시의적절하고 유용한 성찰의 틀을 제공한다.

한편으로 그것은 식민지 조선인의 중국 담론이라는 거울로 지금 우리 자신을 비춰 준다. 저자가 차분한 시선으로 서술한 조선인의 중국(인)에 대한 복잡한 감정들—연민, 증오, 부러움, “더 문명화된 주체에게서 받은 치욕감을 덜 문명화된 중국인에게 전가하는 ‘모욕의 악순환’”(406)은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중국 인식에서 우리의 ‘참된 장소감’이 없는 몰주체적인 현상도 반복되고 있다. 중국에 대한 비틀린 감정과 유사인종주의적 차별을, 특정한 ‘보편’과 ‘문명’의 논리에 기대어 정당한 ‘경계’와 ‘비판’으로 여기는 것이 그 예이다.<sup>11</sup>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인터-아시아’의 시각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다. 저자는 이 시각이 “오늘날까지도 한국에게 중국이란 무엇인가라는 명제를 사유하는 데 유효”(8)하다고 강조한다. 비판적 담론으로서의 ‘동아시아’론이 거의 소실 상태에 이른 지금의 한국 학술장에서 ‘인터-아시아’를 환기하는 것은 다소 낯게 느껴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뒤에는 저자가 1920년대를 살아간 조선 지식인의 언설들을 대량으로 읽고 그와 대화하면서 도달한 진지한 깨달음이 존재한다. 따라서 더욱 무게감과 설득력이 있

10 피경훈(2021), 「‘혐중(嫌中) 시대’, 비판적 중국 읽기의 의미: 임춘성, 『포스트 사회주의 중국과 그 비판자들』에 대한 서평, 『마르크스주의 연구』 64; 윤영도(2021), 「‘혐중’을 넘어 ‘지중’의 길로 나서는 노정을 위한 두 개의 나침반: 임춘성의 『포스트사회주의 중국과 그 비판자들』, 백원담의 『중국과 비(非)중국 그리고 인터차이나』, 『문화과학』 108 참고.

11 김희교는 홍콩 시위에 대한 한국 사회의 반응을 예로 들어 이른바 ‘보편’적 가치에 대해 비판하였다. 그리고 그는 한국의 ‘혐중’ 현상의 궁극적인 원인을 안보적 보수주의로 분석하였다. 김희교(2022), 『쟁개주의의 탄생: 누구나 함부로 말하는 중국, 아무도 말하지 않는 중국』, 파주: 보리 참고.

다. 지역 구상으로서 '동아시아'가 지금도 유효한지의 여부와 별개로, 한중 일 등 사이의 전쟁과 식민, 냉전으로 만들어진 '(동)아시아'는 여전히 중요한 역사적 실체다. 그리고 그것이 남긴 복잡한 관계들을 대면해 나가는 작업은 아직도 산적해 있다. 『중국으로 가다』가 다시 환기한 '인터-아시아'의 시각 속에서 한국과 중국의 지식인이 “상대방의 곤혹과 고뇌”를 진정으로 공유하며, “자아의 주체 형성 과정 속에 타자라는 또 다른 주체에 대한 깊고 진실한 정서상의 연대를 포함”<sup>12</sup>해 나가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김경숙(2011), 「친일과 전향의 내적 논리 1: 주요한의 경우」, 『우리문학연구』 32, 우리문학회, pp. 223-265.
- 김재용(2018), 「일제 최후기 조선문학과 중국」, 『현대문학의 연구』 65, 한국문학연구학회, pp. 223-243.
- 김희교(2022), 『짱개주의의 탄생: 누구나 함부로 말하는 중국, 아무도 말하지 않는 중국』, 파주: 보리.
- 민병희(2017), 「'중국'과 사상사(思想史): 거자오광(葛兆光) 교수와의 대담」, 『중국지식네트워크』 9(9), pp. 5-51.
- 백영서(2022), 「문명대전환기 한국에서 '비판적 중국연구'의 제고와 보급」,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2022.5.28.).
- 왕더웨이(2017), 김혜준 역, 『시노폰 담론, 중국문학』, 고양: 학고방.
- 윤영도(2021), 「'협중'을 넘어 '지중'의 길로 나서는 노정을 위한 두 개의 나침반: 임춘성의 『포스트사회주의의 중국과 그 비판자들』, 백원담의 『중국과 비(非)중국 그리고 인터차이나』, 『문화과학』 108.
- 이정훈·박상수 편(2010), 『동아시아, 인식지평과 실천공간』, 아연출판부.
- 임대근(2022), 「한-중 문화갈등의 발생 양상 연구」, 『한중언어문화연구』 63, pp. 203-221.
- 차태근(2019), 「한국 신문화운동과 중국의 시좌: 1920년대 전반 李東谷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54, pp. 215-254.
- 천진(2012), 「1920년대 초 동아시아의 성찰하는 주체와 현대 중국의 표상」, 『중국문학』

12 허자오티엔(賀照田), 「중국 혁명과 동아시아담론」, 이정훈·박상수 편(2010), 『동아시아, 인식지평과 실천공간』, 아연출판부, pp. 228-229.

72, pp. 239-264.

최명국(2011), 「주요한의 상상된 '조선혼'과 친일문학의 도정」, 『현대문학이론연구』 45, 현대문학이론학회, pp. 373-392.

피경훈(2021), 「'혐중(嫌中) 시대', 비판적 중국 읽기의 의미: 임춘성, 『포스트 사회주의 중국과 그 비판자들』에 대한 서평」, 『마르크스주의 연구』 64, pp. 89-120.

한기형(2005), 「근대 초기 한국인의 동아시아 인식: 『청춘』과 『개벽』의 자료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50, pp. 167-198.

高橋孝助·古厩忠夫 編(1995), 『上海史: 巨大都市の形成と人々の営み』, 東京: 東方書店.